

碩士學位 論文

자살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및 대응

Christian Ethical Evaluation on Committing
Suicide

2008年 12月

崇實大學校 基督教學大學院

基督教社會學科

문 상 명

碩士學位 論文

자살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및 대응

Christian Ethical Evaluation on Committing
Suicide

2008年 12月

崇實大學校 基督教學大學院

基督教社會學科

문 상 명

碩士學位 論文

자살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및 대응

指導教授 이 철 교수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제출함

2008年 12月

崇實大學校 基督教學大學院

基督教社會學科

문 상 명

문 상 명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查委員長_____印

審查委員_____印

審查委員_____印

2008年 12月

崇實大學校 基督教學大學院

목 차

국문초록.....	ii
영문초록.....	iv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장 자살과 관련된 이론.....	5
2.1 기독교적 관점.....	5
2.1.1 생명윤리 관점.....	9
2.1.2 성서적 관점.....	12
2.2 일반적 관점.....	13
2.2.1 사회적 원인분석.....	14
2.2.2 사회학적 관점.....	19
제 3장 자살에 대한 기독교의 평가.....	24
3.1 기독교 윤리에서 본 자살.....	24
3.1.1 초대교부의 견해.....	24
3.1.2 신학자들의 자살에 대한 논의.....	25
3.1.3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28
3.1.4 교회 전통적 관점.....	34
3.2 목회자의 자살에 대한 평가.....	35
제 4장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44
4.1 자살예방을 위한 신앙적 교육.....	44
4.1.1 인간존엄성 이해교육.....	44
4.1.2 올바른 죽음의 이해와 수용.....	46
4.2 자살예방을 위한 기독교 단체의 역할.....	49
4.2.1 교회의 역할.....	49
4.2.2 기독교NGO의 역할.....	55
4.3 생명의 전화 활용.....	58
제 5장 결론.....	59
참고문헌.....	64

국문초록

자살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및 대응

基督教社會學科 문 상 명

指導教授 이 철

최근 20년간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6년부터 10년간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9.1-11.8명 정도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1996년부터 자살률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8년 IMF사태 이후에는 19.9명으로 이전시기보다 두 배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이후 2000년 까지 2년 동안 자살률이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01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24명으로 1998년 수준을 초과하였고, 이후에도 증가의 속도는 줄었으나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무려 26.1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기독교윤리학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경우이다.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눅 14:26)

오늘날 한국교회는 급증하는 자살률이 보여주듯이 자살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반적인 방편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 현실을 맞이한 교회는 교육과 실천의 두 전선에서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백한 성경의 법이 있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에의 충동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자들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교회는 자살충동을 유발하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제거 내지 완화시키기 위한 실천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구제기금을 조성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경제적으로 돋는다든지,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자살충동을 느끼는 자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위로하고 설득하는 상담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든지, 자살결행자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복음의 위로와 사랑의 실천이 풍부하게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교회는 또한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으며 사후에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준엄한 진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자살과 관련된 부당한 구원문제에 있어서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Christian Ethical Evaluation on Committing Suicide

Moon, Sang Myung

Dept. of Christian Sociology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Advisor: Professor. Dr. Lee chul

According to survey of the suicide rate for recent 20 years, the suicide rate have maintained 9.1-11.8 people per hundred thousand from 1986 to 1999 without major change, but since 1996 it became highter and higher and in 1998, the IMF situation, it soared to 19.9 people, which means the number of people who committed suicide became doubled. Although. the suicide rate seemed to decline for 2 years until 2000, it started to rise again after 2001. It scored 24 exceeding the one of 1998, and even 26.1 people per 10 hundred thousand killed themselves in spite the speed of increase slowed down.

In christian ethics we can point out the two standard reasons to justify act of the abandon for his life. One is to abandon his life to keep love for God and the faith. Anyone who wants to go to the God should be ready to give up the lives of parents, brother, sister, even his own. (Nuke 14:26)

Today, South Korea churches are facing a serious reality, where people started to use suicide as a way of running away from their pain. Churches should take an action to prevent committing suicide and spreading of suicide as a point of view of education and practice. We need to

emphasize that Christians are the people who are able to overcome the urge to commit suicide because they have the law, "Thou shalt not kill" from the Bible, and can depend on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churches have to make practical and systemic efforts to eliminate or ease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o cause suicidal thoughts. The efforts should be practical, for example we can create a relief fund for the livelihood and economic difficulties in front of them, prepare the social safety net system, enforce the counseling network to talk with people who feel suicide urge to relieve them and build beautiful churches with plenty of love and practice where the people who make their mind to commit suicide can ask any help at any time. Moreover, churches have to teach the severe truth that the spirit of people do not die and that everything after death should be in front of God's judgement as well as to educate people in order not to be misunderstood the unfair salvation related to suicide.

제 1 장 서론(자살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및 대응)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10년간 자살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범국민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993년 자살자의 수가 7,608명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13,055명으로 1.7배나 증가하여 하루 36명, 한시간에 1.5명이 자살한다고 하며, OECD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최근 20년간 자살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6년부터 10년간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9.1-11.8명 정도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1996년부터 자살률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8년 IMF사태 이후에는 19.9명으로 이전시기보다 두 배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이후 2000년까지 2년 동안 자살률이 감소하는 듯 보였으나 2001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24명으로 1998년 수준을 초과하였고, 이후에도 증가의 속도는 줄었으나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무려 26.1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이는 20년 전 자살률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행히 2006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23.0명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지속적인 감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감소인지를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 주위의 자살을 살펴보면 공동체적 삶이 사라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물질적인 가치가 정신적인 가치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 시민에서 유명인사, 어린이,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살을 기도한 사람은 자살자의 8~25배에 이르기 때문에 주위의 가까운 사람의 자살이나 자살기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¹⁾

우리나라와 비슷한 자살사망률을 보이는 나라는 일본, 헝가리, 핀란드 정도이며 대부분은 한국보다 크게 낮다. 특히 그리스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나라이고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도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청년실업, 가정불화와 무관치 않다. 자살 원인은 병명만큼이나 다양하다. 외환 위기 이후 가중된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붕괴, 우울증 등이 주요인이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의 후유증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그리고 물질 만능, 외형 지상주의에 따른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 탓이기도 하다. 여기에 유명인 자살에 따른 동반자살, 생활고 등을 비관한 일가 자살에 이어 인터넷 자살 카페와 자살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시급하다.

일본은 자살대책백서를 통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도 자살자의 사후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방에 나서 자살률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9.10)’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형식적인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자살 예방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자살예방협회를 비롯해 24시간 전문가 상담기관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도 단위 자살예방센터 설립, 자살예방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을 보듬는 ‘따듯한 손길’이다. 자살자는 반드시 ‘사전 징후’를 보이기 때문이다. 자살 예방에 대한 교회에서의 인식과 국가적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최근 자살을 선택한 연예인들 중 상당수가 기독인이다. 그래서 이들의 장례식

1) 전우택. 『자살예방정책』,(보건복지부, 2004), 9쪽

은 기독교식으로 치러졌으며, 그들의 빈소에는 성도라는 위폐가 있었다.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자살사건에서 기독신앙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신앙을 갖지 않은 이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였음에 비하여, 신앙인들은 외로움이었다고 한다. 최근 우리를 슬프게 하는 한 여성 연예인 성도의 자살에 대하여 과연 교회는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 한번이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영적세계의 맛을 보여 주고, 그 세계로 인도하였어야 할 교회가 과연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결한 반성이 요구된다. 이제는 교회가 더욱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한국 교회와 신앙인들은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위기의 때임을 깨닫고, 이제 다시 일어나 우리 자신과 이웃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교회가 성도의 자살에 전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살예방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의 기독교 윤리적 관점과 실제적 자살예방을 교회 안에서의 교육과 정부차원에서 자살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자살이 자살자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지만, 그 사회적 파장 효과가 엄청나며, 그것이 비단,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

점보다는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자살의 개념을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은 문헌적 고찰로 기존의 관련 논문과 참고문헌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은 자살과 관련된 이론으로 기독교적 관점과 일반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자살에 대한 기독교의 평가로 기독교 윤리에서 본 자살과 목회자의 자살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신앙적 교육과 기독교 단체의 역할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자살과 관련된 이론

2.1 기독교적 관점

자살이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행동을 뜻한다. 그러면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모든 행동은 윤리적으로 부당한 행동인가? 윤리적 문제로서의 자살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자살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는 행동들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자살은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목숨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직접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목숨을 종결시키는 상황을 맞이하여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고 맞이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 죽이는 행동이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면 이 행위는 명백히 타살이다. 우선 이 구분에 대하여 지적해두고자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자기 손으로 종결시키는 첫 번째 경우와 달리 두 번째 경우는 자기 목숨을 종결시킨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인가긴 하지만 그 요인을 피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지 않은 것이므로 자신의 목숨을 종결시킨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첫 번째 경우와 같이 본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목숨종결의 원인이 본인의 결단에 있다는 점에서 두 경우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이든 두 번째 경우이든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하여 한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본인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하여 한 행위가 아닌 경우, 예컨대 우울증이나 치매와 같이 자유로운 결단을 행사할 수 없는 정신질환에 걸린 상태에서 행하는 병적인 자살의 경우에는 윤리적인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 분명한 경우에는 윤리적인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 이 경우는 정신질환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신질환의 치료를 재정적인 면에서와 간병의 차원에서 간접 지원하는 일과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 환경들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위자 스스로의 결단에 의하여 - 명백한 자살이든, 아니면 자기 목숨을 타살이나 기타 죽음의 원인에 내어주는 행위이든 - 죽음에 이르는 행위는 모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 경우에는 결단의 동기 또는 결단을 하게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동기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명되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이라 할지라도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면 윤리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동기나 목적이 선하면 모든 자살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이 경우에는 동기나 목적이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지켜야 할 가치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기독교윤리학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경우이다.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눅 14:26).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빌 2:30).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롬 14:8). 이 말씀들에 근거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보전하는 길을 포기하고 목숨이 희생되는 계기를 맞이하는 순교자들의 행동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목숨을 스스로 끊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행을 짚어진다는 의미에서 죽음에 몸을 내맡길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순교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것이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고행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맞이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는 경우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요15:13).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역자인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롬 16:3).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행동은 기독교인들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행동을 요청하는 모범으로 제시된다(요일 3:16). 이 말씀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동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로 일단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모든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자살은 생명을 버리는 행동이므로 자살을 결행하는 목적이 생명의 희생을 상쇄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를 공리적으로 계산해 보아야 하며, 불가피한 수단이었는가도 따져 봐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자기목숨을 버리는 행동들 가운데는 자기의 손으로 직접 목숨을 끊는 행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정확하다.

(1) 타인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 사병이 실수로 안전핀을 뽑은 상태로 떨어뜨린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덮쳐서 폭사(暴死)하고 수많은 사병들의 생명을 살려낸 강재구소령의 행동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어느 군목은 전쟁포로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송되어 가던 중 파선을 맞이했다. 구명보트가 내려졌는데, 이 구명보트의 승선허용인원이 승선해야 할 사람들 숫자에 비교하여 볼 때 한 사람이 모자랐다. 군목은 다른 전쟁포로들을 다 태우고 자신은 바다에 뛰어내려 파도 속으로 사라졌다²⁾ 이 군목의 자살행동도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동이다.

(2)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투를 중단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죽음의 가능성이 충분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조국을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총탄이 난무하는 전선에 뛰어드는 행동은 비록 구해야 할 특정한 사람의 생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동이다. 삼손이 다곤 신당을 무너뜨린 행동도 이 범주에서 정당한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삿 16:23이하). 더욱이 삼손의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 행동으로서(삿16:28), 히브리서 기자로부터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 이방사람들의 전을 물리친 행동으로 평가받았다(히11:32-34) 는 사실은 삼손의 행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3) 우리나라의 운동권에서 열사(烈士)로 추앙되고 있는 전태일의 분신자살이나 월남 전쟁 당시에 월남정부의 부패에 항의하는 표시로 승려들이 분신자살한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자살하는 행동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정치적 이념들이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요구할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는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체로 정치적 이념들은 인간과 사회를 증진시키기 보다는 그것들

2) Douma 1984, 95; 1983, 127vv).

이 지닌 유토피아적 성격 때문에 오히려 인간과 사회에 심각한 해독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았다.

(4) 순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자살하는 행동은 순결이 소중한 가치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잡을 만큼 소중한 가치는 아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5)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족에게 안겨주고 가족들의 희생적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가족들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살을 시도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자살을 결행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공동체의 없어서는 안 될 일원임을 인식시켜주고 포용하는 태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담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능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2.1.1 생명윤리 관점

자살이 생명체의 죽음, 곧 생명의 종료와 관련되는 이상 윤리적 차원에서 자살을 논하는 경우 먼저 생명의 의미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생명이지만, 이를 정확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의 본질이 워낙 깊고 넓은 것이어서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간단히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은 생리적, 대사적, 유전적, 생화학적, 열역학적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생리학적 정의에서는 생명이란 먹고 배설하고 신진대사를 하며 자라고 움직이고 생식작용을 하며 외부 자극에 일정한 반응을 나타내는 등의 생리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짓는다.³⁾ 하지만 이 정의는 과학적으로 접근했다고는 하나 생명의 다양한 현상적 성질들을 나열했을 뿐이지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는 잘 보여주지 못한다. 또한 생명이란 오직 인간의 생명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만이 가치가 있으며, 인간 외의 생명은 도구로 활용 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반면, 인간 외에 다른 존재들, 즉 동물, 식물에 대해서도 살아 움직인다는 이유로 인간의 생명과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입장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유대를 통해 서로의 상호 공존을 더욱 강조한다. 물론 오늘날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단순히 생태계의 파괴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명조작 및 정보화의 시대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생명경시 현상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간인가, 자연인가 하는 한쪽 면에 치우친 주장이 아니라 생명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근본적으로 존귀한 것이라는 믿음아래 어떻게 생명의 존귀함을 이해하고, 어떻게 생명을 고양시킬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신성하며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이 고귀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마땅히 보전되어야 할 고귀한 것이며 영원토록 지탱되어야 한다. 생명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본성상 생명으로서 그의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생명은 하나

3) 강두호, 『자연법 사회 윤리』, (서울: 인간사랑, 2003), 227쪽

4) 전교훈, 『철학에서 본 생명』, (서울: 생명연구소, 1992), 8쪽

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파괴할 권리도 없고 생명이 있는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생명을 보호하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귀하게 여기길 원하신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여겨 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존엄하게 여기는 자세는 기독교인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생각하는 기본토대가 되어야 한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책임감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자살은 자기가 부여받은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을 취하는 모든 행위는 살인을 금하는 십계명을 범하는 일이다. 남을 죽이는 일만이 살인이 아니라 스스로 취하여 생명을 끊는 자살도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자살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의 첫째 조건인 자기 사랑조차 포기하는 매우 죄악된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파기하는 행위이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책임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신성한 것이고 존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생명을 경외하여야 한다. 이 말은 생명을 우상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에 쓰라는 것이다. 더욱이 믿는 자들은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그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사나 죽으나 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생명은 단 일회적인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이 생명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암묵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은 소중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2.1.2 성서적 관점

자살이 죄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말씀을 성서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자살은 정죄의 대상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불문율처럼 인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자살 사례로는 아비멜렉의 자살(사사기 9장), 사울의 자살(삼상 31장), 아히도벨의 자살(삼하 17장), 시므리의 자살(왕상 16장), 유다의 자살(마 27:15, 행 1:18)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그저 역사적 사실로 자살을 언급할 뿐, 그 윤리성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범죄로 인정하는 것은 성서의 어디에서 추론하는 것일까? 먼저 구약성서부터 살펴보자.

자살에 관한 성서적인 금지 규정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는 추론이 가능하다. 창세기 9장 5-6절에서 노아 홍수 후 살인을 금지하는 제도와 살인에 대한 사회적인 제재 조치가 나타난다. 즉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창 9:3, 5-6). 이 말씀은 사람의 피는 거룩하고 침해할 수 없는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짐승이 만일 사람을 죽이면 그 짐승을 죽이도록 조치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살인자의 생명을 요구하겠다는 뜻이며, 살인자에 대한 심판권을 인간에게 맡기시겠다는 의미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자살이 6째 계명을 범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자살을 허락지 않으셨

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는 질병과 죽음을 사람이 생명의 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결과물로 보았으며, 자신이 자기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자살행위는 하나님의 6째 계명을 깨뜨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살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그래서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며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도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자살을 살인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인命을 위협하는 모든 동기와 행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신약성서를 살펴보면, 사도바울은 로마서 14장 8-9절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삶과 죽음이 모두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성도는 온전히 주의 소유이며 주께 속한 것이 된다고 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 중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엡 5:29)라고 말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고 보호하고 양육한 것처럼 누구든지 항상 자기의 육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자살은 물론 자기 학대까지도 금하고 있다고 하겠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라는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인간의 몸의 가장 차원 높은 가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 아니라(고전 6:15)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밝히고 있다.

2.2 일반적 관점

2.2.1 사회적 원인분석

2.2.1.1 사회적 원인

사회적으로 자살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결속되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껴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이며 또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절망적인 행동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의 고전인 ‘뒤르깨’은 자살이라는 용어는 희생자 자신이 일어나게 될 결과를 알고 행하는 적극적 혹은 소극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결과로 일어나는 모든 죽음의 사례들에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살 미수는 자살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나 실제로 죽지 않는 경우라고 말했다.

모든 사회적 집단에는 유기적 및 심리적인 개인의 체질이나 물질적인 환경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자살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살의 경향은 사회적 원인에 의거할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가 집단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모든 자살 경향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그러한 경향은 하나의 분류로 묶여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 너무나 차이가 심해서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밖에 없을 때에는 그들의 유사성과 차이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으로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남들이 말하는 이유와 자살자가 직접 내세우는 원인은 대체로 외형적인 원인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들은 일반적인 조건의 단순한 개인적인 반향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마저 충실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조건은 서로 다른데도 개인적인 동기는 같은 것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자기파멸의 충동을 일으키는 외부의 환경이 가장 손쉽게 찾아들어올 수 있는 개인적인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가 외부적인 환경의 일부가 아니므로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살이 직접 일어나게 된 원인을 결정하려고 하며 특별한 개인에게서 가정할 수 있는 형식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동기와 이념을 무시하고 자살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 즉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직접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로 되돌아가 일반적인 원인들이 어떻게 개별화되고 그러한 개별화가 어떻게 살인적인 결과로 연관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2.2.1.2 정신분석학

전통적으로 정신분석학은 자살을 한 개인의 자기파괴 행위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의 근거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사회적 접근만으로는 자살에 관한 여러 복잡한 요인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학적 내지는 심리학적인 계통적 접근에 있어서 우리는 프로이드(S. Freud)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프로이드는 ‘애도와 우울’(1917)이라는 저서에서 자살적 태도의 발생에 관한 최초의 심리학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을 만들어냈다. 프로이드는 자살적 태도와 우울증의 정신역동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즉, 자살적 태도와 우울증은 공격성이 자기자아를 향해 전위된 것이 자 객체에 대한 양면적 태도로 간주될 수 있다⁵⁾. 공격성이 자기자아를 향해 전위될 경우에 그것은 죄책감, 자기비하 그리고 그 최종 결과인 자기자살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프로이드는 자살의 원인을 자아방어 붕괴와, 이에 따르는 파괴적

5) 최종진, “사서함 60호 자살에 대해서”, 「경향잡지」, 3호, 1990, 118쪽.

본능에너지의 작용과 관련시켜 설명한다. 이들 작용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사랑 대상의 상실, 내성화된 사랑 대상을 향한 공격심, 자기애적 손상 등이 제시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평형 상실의 정서를 다시 회복함에 있어, 외향적 공격 수단 대신 자기 스스로에게 화살을 던짐으로써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살에 관한 한, 프로이드는 죽음의 본능이 초자아적 질환의 일종으로서의 우울병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질환이 심하면 심할수록 환자는 더욱 더 자살의 충격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자살이 곁으로는 충동적으로 보이지만, 자살의 사후 연구에 의하면 70% 이상이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울증이 제일 위험한 증상이다. 그 외에 정신 분열증,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의한 자살도 많다. 그렇다고 모든 자살자가 다 정신과 환자는 아니다. 에이즈, 암, 만성 질환 등의 환자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벗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안 되게 하려고 자살하기도 한다. 암 진단 1년 내에 50% 정도가 자살기도를 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과 생식기 계통의 암일 때에 자살이 많아진다.⁶⁾

이와 같은 자살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론은 그 후에 몇몇 후계자들에 의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예를 들어 프로이드의 제자인 아들러(A. Adler)는 의존성, 자기중심성, 충동성 그리고 이것들에 의하여 둘러싸인 공격성 등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신분석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메너저(Menninger)는 프로이드의 죽음의 본능가설을 가장 강하게 지지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는 인간에게는 내재하는 파괴의 경향이 건설적 경향을 억누를 결과로 자살이 생긴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충동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즉 ‘죽이고 싶은 충동’, ‘죽여주었으면 하는 충동’ 그리고 ‘죽고 싶은 충동’들이 바로 그

6) 정인화. 『고뇌하는 현대인들』,(서울: 서광사, 1996). 28쪽.

것이다.⁷⁾

그리고 자살의 심리를 분석한 리트만(Litman)의 연구결과는 오늘날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는 자살의 심리를 총괄하면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적 자살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마음속에서 진행되면서 사실상 심리적으로 연습되어 오는 예가 많다고 말한다. 또 최후단계에 이르러서는 심리적 위기나 정서의 갈등이 증대되나, 그때까지는 죽음에 대한 심리상태가 양가(兩價)적이어서 통일되지 않은 채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이른바 무의식에서 죽음의 환상이나 염원은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가 도피, 정지, 잠, 죽음 따위에 대한 염원, 둘째가 별, 속죄, 희생, 따위에 대한 염원, 셋째가 복수, 힘, 압제 따위의 적의 있는 염원, 넷째, 적극적인 피학(被虐), 최대의 황홀, 사랑하는 자와의 죽은 후의 재회 따위의 성적 염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구제, 재생 따위에 대한 염원들이다.⁸⁾

2.2.1.3 모방가설

자살이 개인적인 한 그것은 항상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유행성 풍조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까지 같은 길을 걷게 함으로써 자살은 파멸과 정신적 침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적 작용을 하는 것이다. 무릇 사람의 행위란 그 행위자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의 존재를 파멸시킬 뿐 아니라 그 죽음의 씨앗을 퍼뜨려 자기의 운명적 결단을 외부에까지 확산시키는 자살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전염가설, 암시가설로 표현되는 모방가설이 있다. 한마디로

7) 김미영. 『자살충동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서울: 나남출판사, 1990)., 103쪽.

8) Schopenhauer. Arthur, 『삶과 죽음의 변뇌』, 송영택 역, 서울: 도서출판, 1979. 33쪽.

어떤 전범의 자살적 태도가 모방된다는 것이다. 이에 개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삶이 위기와 계속되는 사회적 곤란을 극복하는데 대한 사회적 방책이 불충분하다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 받기 쉬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때로 소설이나 영화, 회화 속에서 자살은 흔히 비극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베지니아 울프의 강물 투신자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설국’의 작가 가와마다 야스나리의 음독자살, 권총 자살을 한 고호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의 작가 헤밍웨이 등 자살로 생을 마감한 예술가들이나 문학가들은 신비화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러한 낭만적인 자살이 젊은이들에게 모방충동을 일으키게 하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쉽게 사라지지 않는 듯하다. 1774년 9월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발표한다. 한 여자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 총을 겨눈 젊은이의 이야기였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자살의 자극제가 되었다. 많은 젊은이가 총을 쏘아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푸른색 프록코트와 노란색 조끼를 입고 그 옆에는 괴테의 소설이 있었던 것이다. 자살의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금지가 되었다. 1974년 사회학자 필립스(D. Philips)는 자살의 전염 현상을 일컫는 말로 ‘베르테르의 효과’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⁹⁾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의 자살 사건 이후 ‘모방 자살’ 사례가 연일 발생해 이를바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08년 10월 3일 부산 중구 보수동 모 여관 객실 화장실에서 최모(66)씨가 샤워기에 감긴 압박붕대에

9) Blocher, Henri. 『자살』, 한국기독학생출판부, 1986, 28쪽.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여관종업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최진실도 샤워기 에 압박붕대를 감은 상태였다. 2008년 10월 4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모텔 8 층 객실에서 A(28)씨가 천장에 압박붕대로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했다.¹⁰⁾ 경찰은 현장에서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에도 부산 수영구 민락 동 모 오피스텔에서 최모(28·여)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최근 우울 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와 함께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일 오전 6 시4분쯤에는 강원 강릉시 포남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모(여·30)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자신의 방 천장 쪽 가스 배관에 압박붕대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또한 오전 0시40분쯤 전남 해남군 모 아파트에서도 박모(여·55) 씨가 집 욕실에서 압박붕대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들 이모(35)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2008년 9월 8일 텔런트 안재환의 연탄가스 자살 사건 이후에는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 놓고 목숨을 끊는 사건이 전국에서 속출하기도 했다. 2008년 10월 4일 오전 5시40분쯤 경남 진해시 여좌동 하천변 산책로에서 김모(37·여) 씨가 산책로 난간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임모(57·여)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선족인 김 씨가 지난 2일 오후 7시쯤 최진실 자살 사건 보도를 시청하던 중 말없이 집을 나갔다는 유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2.2.2 사회학적 관점

자살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말 ‘뒤르켐’(Emile Durkheim)에 의해 사회학적 측 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뒤르켐은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

10) 조선일보(2008년 10월5일 23면).

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2.2.2.1 이기적 자살

이 유형은 한 개인이 사회 내로 올바르게 통합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하여 자유의지와 은총을 중시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은 가톨릭교회에 비해 자살을 더 자극하고 있는 것 같다. 가톨릭 교회는 의식과 교리에 대해 더 철저한 순종을 강요함으로써 신도들로 하여금 집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므로 자살 경향이 적다. 마찬가지로 과학의 출현은 꽤나 자비롭고 전지(全知)한 신에 의해 주재되었던 자연세계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소박한 신념을 밑동부터 잘라 버렸고 그와 함께 자살률의 증가까지도 가져왔다. 그리하여 구약(舊約)의 가족생활 형태(조부모, 부모, 자식들 모두가 한 지붕 밑에서 긴밀한 유대 속에 모여 살던)는 가족의 일원이 자멸의 충동을 막아주었지만 오늘날의 봉괴된 가족생활은 자멸 충동을 조장하고 있다.¹¹⁾

“개인의 존엄이 최고의 행위윤리가 되어 있는 사회나 환경에서는 인간이 인류에 대해서 신의 지위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은 자신에게서 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승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와 같이 자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도덕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개인은 자신보다 더 높은 것은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게 될 수가 있다. 물론 개인주의가 반드시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확대되지 않고 다른 하나가 증진될 수 없다. 그리하여 이기적 자살이 발

11) 알프레드 알바레즈. 『자살의 연구』, 최승자 역, 서울: 청아 출판사, 2000, 122-128쪽

생하게 된다. 끝으로 진보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개인들을 규제하는 규칙들은 충분히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규칙들이 원시사회의 엄격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진보는 충분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약화된 규제는 욕망과 야망을 성급하게 상승시키다.”¹²⁾

이와 같은 뒤르켐의 주장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젊은 층의 자살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2.2.2 이타적 자살

타애(他愛)자살이라고 불리는 이 유형은 하나의 집단 본위적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집단 속에 거의 완전히 매몰되어 있음으로서 집단에게 아주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살을 말한다. 뒤르켐은 이 집단본위의 자살을 다시 3가지로 분류한다. 즉, 미개사회에 있어서의 이른바 순사(殉死)와 같은 강제적 의무로써 이루어지는 의무적 집단 본위적 자살 그리고 강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행위 자체에 사회적 덕(德)과 존경이 부과되므로 이를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불명예에 해당되므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수의(隨意)적 집단 본위적 자살, 세 번째로는 생을 단절하는 그 자체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그저 찬양 받기 위하여, 즉 희생의 희열을 갈구하여 자살하는 일종의 격렬한 집단 본위적 자살을 말한다.¹³⁾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선’으로 인정하는 ‘순교’ 또한 이타적인 자살로 보아야 하는가? 물론 순교는 물에 떠내려가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 급류에 몸을 던진 어머니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할 수 없듯이 ‘순교’ 역시도 자살로

12) 에밀 뒤르켐. 『자살론』, 김충선 역, 서울: 청아출판사, 2000, 394쪽

13) 김종은, “자살”, 「의학윤리」, 제 2집, 1997, 229쪽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순교 역시도 넓은 의미로 ‘이타적인 자살’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비록 다른 이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행동이나 말이 자신을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생명보다 개인적인 신앙의 신념에 의해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넓은 의미의 ‘이타적 자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2.2.3 아미노적 자살

아미노적 자살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급격히 변화하여 그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아미노적 자살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교제가 붕괴되어 개인의 욕구가 공동의 규범에 의해 규제되지 못하고 결국 개인이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지침을 갖추지 못하는 무규범 상태에 빠질 때 발생하는 것이다. 뜻하지 않게 막대한 재산이라든지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엄청난 빈곤의 상태 혹은 쓰라린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사회 구조가 지나치게 이완되어 있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경직되는 것을 넘어 구조 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듯이 느껴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가 익숙해 있던 세계가 붕괴됨으로 인하여 길을 잊게 된 까닭에 자신을 죽이게 되고 마는 것이다. 뒤르켐의 아미노 이론에서 ‘아미노’는 인간의 열망에 대한 문화적 규제의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 사회 내의 신념 체계들 간의 갈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미노는 또한 사회적·개인적 수준에서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균형을 뜻하기도 하고, 자아의 타인에 대한 소외의 심리적 조건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을 통해 뒤르켐은 자살을 아미노의 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는 도시화, 공업화, 경기 팽창과 위축들을 지표로 자살을 분석하였다. 개인이 사회 집단과 결속에서 끊겨져 나온 결과 생기는 사회, 심리적 고립현

상을 뒤르켐은 아미노라 불렀고,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자살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말한다. 물론 타당성 있는 주장이지만 자칫 ‘자살현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회에 있다’는 편중된 생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뒤르켐이 지적한 대로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자살은 이기적 요소와 이타적 요소 그리고 아미노적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듯 자살의 원인들은 사회학적 분석만으로는 간단히 설명될 수 없으며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제 3장 자살에 대한 기독교의 평가

3.1 기독교 윤리에서 본 자살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이 지배하였던 중세기 서구 사회에서는 자살을 죄악으로 보아 금지하였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반(反)그리스도교 학자들은 계몽주의 이후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대로 넘어 오면서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D. Hume, P. de Montesquieu, J. J. Rousseau, A. Schopenhauer, E. von Hartmann, F. Nietzsche 등). 그러나 칸트(I. Kant)는 윤리성의 주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윤리성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라 하여 자살을 배격하고 있다. 또한 19세기 초 괴테(Gothe)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과 같은 문학의 낭만주의 사조는 자살을 미화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초대교부에서 본 자살에 대한 견해와 신학자들의 견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1 초대교부의 견해

성경에는 자살을 금하고 있는 구절이 없다. 다만 죄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살의 예가 기록되어 있는데,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반역한 아히도벨의 경우와 아비멜렉의 자살,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유다의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자의 정조(貞操)가 강제적으로 유린당하려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인의 경우를 놓고 초기 교부들 중에는 그것을 긍정한 사람이 있지만 어거스틴

(Augustine)은 이에 반대했다. 마찬가지로 아퀴나스(Thomas Aquinas)도 자살에 서의 예외적인 경우를 시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설명에서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에서 판단할 때 자살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대로 정조가 유린될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살을 시인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는데, 작은 악을 피하기 위하여 큰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요, 차라리 정조를 유린당하는 쪽이 낫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자유가 그릇되게 행사되어 나타나는 자살이 윤리적으로 판단해도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부여된 생명을 스스로 종결짓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생명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종교적인 차원의 이유를 추가하면서, 아퀴나스는 자살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3.1.2 신학자들의 자살에 대한 논의

초대교부의 자살에 대한 평가는 자살의 잘못됨을 윤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윤리적으로는 자살이 궁정될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자살이 죄가 된다고 하며, 이러한 결론을 ‘신앙의 결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하나님에 의한 정당화가 아니라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self-justification)태도의 표현이 자살이며, 신앙의 결여를 나타내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의 동기를 절망이라는 시각에서 이해될 수 없고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살이 궁정될 수 없는 것이다.¹⁴⁾

14) 송효정, “본회피의 기독론적 현실과 죽음론”,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원, 1994, 36쪽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John Chrisostomus)는 지금 현세의 생명을 빨리 끝내면 영원한 생명이 그만큼 빨리 온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말한다. 인간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현세의 생명에 우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끝내지 말고 자연 질서에 따르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을 써야 하고, 하나님께 거슬러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가 쓴 강론집 안에 그리스도 신자들의 순교를 찬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는 그런 경우 죽음을 하나님의 뜻,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함으로써 생명과 죽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순교자들의 행위는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뜻의 자살이라고 할 수 없다. 성 예로니모는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예수를 배반한 죄 뿐 아니라 목을 매어 자살한 죄까지 가중시켰다”고 엄중히 단죄하고 있다.¹⁵⁾

성 아우구스티노(Augustinus)는 모든 자살을 객관적 살인 행위로 본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자살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단죄되어야 할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것들은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죄하기 위해서 성서에 제시된 사건들이다. 죄를 피해서든 불행한 생활을 끝맺기 위해서든 어떠한 구실로도 자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영웅적인 거룩한 순명 정신으로 자살했다면 질료(質料)적 자살 일 뿐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인정해야하고 사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식적 의지적 자살은 항상 악행이 되고 죄책이 따른다고 가르쳤다. 아우구스티노는 다음과 같이 강조

15) Schopenhauer, Arthur, 「삶과 죽음의 변뇌」, 송영택 역, 서울: 도서출판 회현, 1979, 61쪽.

한다.

그 누구도 일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고의로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영원한 고통을 초래하고야 만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악을 피하기 위하여 자살해서는 안 된다. 그는 - 비록 다른 사람의 악행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는다 해도 - 자기 자신에게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된다. 그는 참회를 통하여 그 죄를 속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참회를 하기 위해서도 생명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죽은 후에 자기를 맞이해 줄 더 좋은 세계로 가기 위해 자살해서도 안 된다. 자살자를 맞이해 줄 더 좋은 세계란 없기 때문이다.¹⁶⁾

성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아우구스티노의 이론을 더욱 학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십계명의 제5계명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그는 자살을 정당화하는 구실로서의 개인의 자유에 의한 자율성 이론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인격을 자유로이 처신할 수 있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종말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옮겨놓으려는 것은 결코 윤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인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첫째, 사도 바울로가 말한 대로 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악은 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자살은 중대하고도 확실한 죄로

16) 김조흡 역. 『하나님의 도성』,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2., 42쪽.

남아있는 반면, 미래에 범할 위험을 느끼는 그 죄는 불확실할 뿐 아니라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 토마스는 자살이 참된 용기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의견도 부정한다. 그러나 남을 사랑하고 돋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으로 바치는 행위는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큰 사랑이라고 성 토마스는 말한다.¹⁷⁾

칼 바르트(Karl Barth)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이며 인간은 이 생명에 대한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바르트는 생명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그야말로 경우에 따라 자신의 삶을 내놓는 것과는 대립적으로 자살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간이 절대주권을 사칭하는 행위로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분명히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지적한다.¹⁸⁾

3.1.3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오늘날 인본주의자들과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인간이 권리로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은 언제나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전통은 항상 자살을 대단히 사악한 선택으로 거부해 왔다.¹⁹⁾ 즉 교회는 아직도 완전한 의식과 자유의지로 행하는 직접적 자살을 옹호하는 사상이나 그것을 행하는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전통적 윤리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자신이든(자살), 다른 사람이든(살인, 안락사, 낙태) 사람을 죽이는 모든 형태는 직접적 살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간

17) 소병근. “죽음이해와 임종교역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3, 18쪽

18) 김종원. “자살”, 「의학윤리」, 서울: 한국가톨릭의사협회, 1992. 11쪽

1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66항

은 자기 육체와 생명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책임 있는 권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간에 생명을 죽이는 것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 불가침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와 계획에 봉사하기 위해서이다. 이 계획은 인간의 협력 없이는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띤 것이다. 둘째, 자살은 공동체와 그 가정과 사회의 많은 봉사와 비용 그리고 희생을 필요로 한다. 한 사람의 생명은 공동체의 많은 투자에 의한 것이다. 사람은 그 공동체를 위해 결실을 맺을 의무가 있으므로 그 생명을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셋째,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자살하는 사람은 더 이상의 자기 인격의 성장을 막아버린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완성으로의 성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희생이 자기완성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더 높은 선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간접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며 또 때로는 요구되기도 한다.²⁰⁾ 예를 들면 구르는 콩을 뒤쫓아 가느라 갑자기 자동차 앞에 뛰어든 자식을 본 순간 그를 구하려고 도로에 뛰어든 어머니의 행동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넷째, 자살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생명의 최고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생명을 감시하는 마음으

20) K.H. 폐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2권』, 김창운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2, 343-345쪽

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용할 의가 있다.

자살을 다루었던 공의회의 의견은 자살을 암묵적으로 단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엘비라 공의회(Elviria, 305년경)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살은 순교자가 될 수 없다고 충고하였고, 카르타르 공의회(Carthago, 348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목숨을 끊은 자를 단죄하였다. 브라가 공의회(Braga, 563년)는 자살자는 전례와 기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서 교회 장례식을 배풀지 말도록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교황 니콜라오 1세(재위858-867)는 자살자는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공적 죄인이라고 해서 자살자는 장례 예절 없이 매장되어야 하고 그들을 위한 미사는 거행될 수 없다고 하였다. 교황 비오 12세는 자살은 윤리적으로 중대한 부당성을 띤 행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희망이 결여된 반증’이라고 하였다.

자살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가르침은 교회법에도 반영되어 왔다. 1917년에 제정된 구 교회법은 의도적 자살자들을 십계명의 제 5계명과 그리스도교 계시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 신권을 침해하는 자들로 보고 교회 장례식을 금지하였다. 즉 완전한 이성과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살한 자에게는 교회 장례식은 행해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성의 결함으로 자살했다면 이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살자의 지향에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의 장례식을 거행하되, 다른 신자들에 대한 추론을 피하기 위하여 성대한 장례식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²¹⁾ 이러한 벌칙은 자살자가 죽기 전에 참회의 표시를 안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죽기 전에 참회의 표시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교회의 장례식을 정식으로 거행해야 할 것이다. 구 교회법은 자살 미수자에게도 이 벌칙을 적용시켜서 자살에 대한 교회의 단호한 단죄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가 평신도일

21) 구 교회법 1240조 2항

경우 성직자가 될 수 없었고, 성직자일 경우에는 성무 집행 정지 처분을 당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1983년에 개정된 교회법에서는 과거보다도 완화된 규정이 보인다. 자살자의 장례식 거행 여부에 대해 전통적인 거절 원칙이 중지되고 공개적 추문의 연유가 되는 분명한 죄인들에게만 장례식이 금지되고 있다. 또 자살 미수자를 성직자가 되기에 “부적격자”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장례식을 거절하는 전통적 대상은 새 교회법 제 1184조에서 특별히 자살자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살자의 주관적인 죄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그 자살자에 대한 교회 장례식의 전통적인 거절은 중지 되었고 그 결정은 교구 주교의 사목적 판단에 맡겨놓고 있다. 주교는 객관적으로 항상 단죄되어야 할 자살 행위에 대해 판단하되 애덕을 최대한 베풀어 자살자의 인간적인 나약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법의 정신이다. 자살을 단죄한 교회 문헌 중 가장 권위 있는 문헌으로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을 들 수 있다.

공의회는 실제적이며 긴급한 결론으로의 인간에 대한 존경을 강조한다. 온갖 종류의 살인, 집단 학살, 낙태, 안락사, 고의적인 자살과 같이 생명 자체를 거역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 문명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창조주에 대한 극도의 모욕이다.²²⁾

또 교회는 고의적인 자살을 행위자의 의도나 상황과는 별개로 언제나 ‘내적으로

22) 사목헌장 27항

약한 것'으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이성은 그 본성상 하나님께 향할 수 없는 인간 행위의 대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상들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선과는 근본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교회의 윤리적 전통에서는 내적으로 약한 것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그리고 그 자체로 다시 말해 그 대상 자체 때문에, 그리고 행위자의 의도나 상황과는 전혀 별개로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과 특히 지향으로부터 받는 윤리성에 대한 영향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행위들은 그 내용의 성격상 구체적 상황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언제나 중대한 잘못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²³⁾

그런데 자살의 윤리 문제는 요즘 안락사와 관련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성이 발표한 선언문 “안락사에 관한 선언”의 내용을 보고 인간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인간 생명은 모든 선(善)의 근본이고, 모든 인간 활동과 모든 사회의 필연적인 근원이고 필요조건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은, 오직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온전한 완성을 찾는 것이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도 결실을 맺어야 할 선으로서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다. 고의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는 자살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일이다. 인간 편에서 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계획에 대한 거부로 간주되는 것이

23) 박원기, 『기독교 사회윤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41쪽.

다. 더 나아가 자살은 또한 자기 사랑의 거부이고 생존 본능의 부정이며,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 또는 이웃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거나 위험 앞에 내놓는 희생과 자살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²⁴⁾.

앞에서 열거한 자료들을 보면 교회는 초기부터 완전한 지식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자살에 대해서 일관해서 반대하며 신앙적 윤리적 죄악으로 단죄하는 등 엄격한 태도를 관철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윤리적으로 판단할 때 ①행위자의 의지, ②행위 자체, ③상황을 감안해서 사랑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교회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본성상 항상 하나님에 맞서게 되는 ‘본질적 악’(intrinsic evil)이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신 자체이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행위에 해당하는 예를 들고 있고, 그 안에 자살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자살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제5계명을 거스르는 큰 죄라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전술한 대로 인간은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명심해야 한다. 자살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리고 아무리 그 동기가 개인이나 사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순수하고 고상한 것이라 해도 감안의 여지도 없고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 행위 자체가 죄악인 이상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죄를 범했더라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오늘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이어받은 새 교회법에 따라 사목적인 배려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 교구장 주교의 사목적 판단에 따라 자살에 대한 교회 장례식도 거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24)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진리의 공채」, 80항

끔찍한 행동을 범하게 만든 개인적 환경 요인을 고려하며 가능한 한 자살의 구원을 모색하려는 교회의 사목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3.1.4 교회 전통적 관점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불행하게도 사실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자살하지 않으리라는 그릇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자살을 금지하고 자살에 대한 이해가 자살을 죄악으로 규정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초기부터 로마인들의 자살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거듭된 회의를 통해 자살을 죄로 규정하고 금지하였다. 452년 알레스 회의는 자살에 대하여 최초로 정죄하였다. 533년 2차 오를레앙 회의는 자살자에 대한 헌금을 금했다. 563년 브라지 회의에서는 자살자에 대하여 교회주관 장례를 금했다. 639년 톨레도 회의에서는 자살 기도 자에게 2개월간 출교 시키는 징벌을 내렸다.

본훼퍼는 ‘자살은 언제나 옳지 않은 것이며 항상 저주받아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자살에는 때때로 자기희생적인 측면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노인이 다른 가족을 위해 목숨을 끊는 경우에 자기희생적인 동기가 시인되므로 살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또한,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 자결하는 행위, 심지어는 명예가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여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에도 희생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생명이지만 고귀한 목적을 위해 생명까지 희생하는 자유의 행사가 일단 시인된다. 그러나 이렇게 윤리적으로는 자살이 긍정될 수가 있지만, 자기희생적인 동기가 강한 경우에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

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것을 권하면서, 신앙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자살을 죄라고 결론지었다.

3.2 목회자의 자살에 대한 평가

개인 생명의 주체는 누구인가?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대한민국은 일 년에 1만 2천 174명,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다. 2007년 죽은 자들의 원인을 보면 자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어서 사망 원인 4위다. 이것은 당뇨병보다 높은 수치다. 자살을 생각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시도를 했지만 죽지는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떤가? 요즘은 성도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인이면서 자살한 이들의 구원문제’다. 그리고 ‘자살한 이들에 대한 장례예식’을 교회에서 치러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기독교에서는 가룟 유다의 자살에서 신의 저주를 보듯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상식이 있어왔다.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은 어거스틴이 5세기 초에 쓴 <신국론>(De Civitate Dei)이다. 이 책에서 그는 자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어느 누구든 범죄자조차 개인적으로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나 명백한 살인자다. …유다는 하나님의 자비

를 멸시하고 자기 파괴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구원을 얻게 하는 기회를 남겨놓지 않았다. …자살자는 ‘네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분명히 저촉되며 인간, 즉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자신을 죽이는 것도 인간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하여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이 없는 세계에 빠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1권 17장, 26장).

이 같은 <신국론>의 논리를 정확히 보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다. 즉 자살이라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살에는 살인의 죄가 더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견해에 따라 563년 ‘브라가 공의회’와 580년 ‘오세르 성직자 회의’에서는 모든 자살자를 처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중세의 스콜라 철학의 대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대표작인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 자살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첫째, 만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자살은 이러한 자연적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써 자살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주신 선물이기에 인간의 마음대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중세를 이어왔다. 1917년 <교회법전>까지도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데리베라토 콘실리오’(Deliberato consilio), 즉 자기 맘대로 생명을 해치는 권한을 행사한 자로부터 교회에서 행해주는 장례의 혜택을 박탈했다. 이로써 자살한 이들은 죽어서도 보통 사람들처럼 교회 묘소에 묻힐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시체에 대한 재판’, ‘공개적인 시체 처벌’, ‘부관(部棺, 무덤)에 묻힌 시체를 꺼내어 형을 가하는 것’, ‘자살한자의 재산 몰수’ 같은 형벌이 가해졌다.

이와 같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의 형벌로 대응해 왔다. 이것은 범죄자로서의 자살에 대한 징계와 함께 현재의 자살이 영원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살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대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이러한 태도들이 교리적으로 확정된 형태는 아니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가르침이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담겨져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자살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 짓지는 않았다. 단지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중세의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의 논리에 의거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개신교회는 어떠한가? 알다시피 자살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가르침 없이 자살한 이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중세적인 속설이 목회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자살한 자에 대한 장례예식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거기서 이루어져야 할 설교는 어떻게 행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범이 정해져야 할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 교회의 준비가 이루어져있지 않다”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살에 대한 태도나 죽은 자들에 대한 장례의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²⁵⁾고 지적한다. 교회는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자살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천신학대학원 교수들은 “자살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발표하는 신학자들은 극히 드물다”고 전제하고 총신대 윤리학과 이상원 교수의 ‘자살과 기독교’ 강연 논문을 인용해 성경의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자살한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견해는 자살을 성령훼방죄로 해석하는 데서 비롯된 생각이다. 자살이 성령을 훼방한 죄라는 견해는 중세시대에 형성된 견해이며 루터, 푸치우스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에 의하여 비성경적인 교리로 거부되었다. 성령훼방죄(마 12:31, 막 3:28-29)는 히브리서 10장 2,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며,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에 제한시켜 적용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죽는 순간까지 고집하다가 죽으면 그 후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령훼방죄의 핵심이다. 자살을 성령을 훼방하는 죄에 관련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다른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기가 범한 죄를 회개할 시간이 있지만 자살한 사람은 자살이라는 죄에 대하여 회개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 구원은 인간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회개한 공로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뿐이다. 만일 특정한 죄를 회개했는가에 근거하여 구원이 결정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항공기를 타고 가다가

25) 박현민.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사목”, 「사목」, 2003, 104-105

갑자기 미사일을 맞아서 회개할 시간을 갖지도 못한 신자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치매에 걸려서 자기가 한 행동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자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많은 신자들은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기도 하고, 과거에 범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신자들이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렇다면 이 신자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다 지옥에 가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신자의 삶이 값없이 오직 은혜로 중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것도 값없이 오직 은혜로 영화됨으로써 구원받을 뿐이다.

구원받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살에 충동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신자의 중생의 상태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미 우리는 엘리야, 육, 요나 등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죽고 싶어 하는 충동에 사로잡혔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신자들도 자살에의 충동을 느낄 수 있으나 믿음 안에서 넉넉히 극복할 뿐이다. 자살은 분명히 기독교인이 피해야 할 죄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 자살에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신자를 평가할 때 자살을 결행한 그 한 순간의 행동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음에 내보는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의 행동을 가지고 다윗을 규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과 다윗의 삶 전체를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평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갈을 취한 한 사건에만 근거하여 아브라함을 평가하지 않으셨다. 수십 년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를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한 그 순간만 가지고 단죄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에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실이 아닌 가르침에 근거하여 교육적 효과를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청소년들을 설득하여 자살의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성직이나 가정불화나 실연 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깊은 배려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주면서 자살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선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자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선행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가르침은 중세 말기 로마 가톨릭의 복음 왜곡과 교회 부패의 진원지가 되었다. 그 가르침으로 평신도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결정짓는 복음이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공로주의에 사로잡힌 교회는 이를 이용하여 돈을 주고 구원을 사고파는 면죄부 파동까지 일어났다. 교육적 효과는 복음과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도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자살한 성도가 자살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루터는 자살자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평민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사탄이 이 가르침을 이용하여 더욱 더 많은 살인을 자행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예배 석상에서는 자살은 기독교인이 피해야 할 죄라는 것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가에만 근거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하는 선까지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살한 가족을 가진 성도들이 자살한 가족이 죽은 후에 간 길에 대하여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개인적인 상담을 통하여 신앙고백을 한 신자라면 사망을 포함한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

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 될 것이다.

자살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큰 현재 상태에서 단순하게 신앙이 없어서 자살을 했다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단죄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행위라고도 말한다. 또, 자살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갈 것이라는 언어표현도 남아 있을 유족들을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우울증 환자를 양산해내는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살에 대해 기독교윤리학, 심리학, 상담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해 보고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자살이 무엇을 의미하고 교회적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2.1 자살에 대한 임동진 목사의 평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자살은 죄입니다”)을 슬로건으로 이어진 사명선포에서는 연예인들의 자성과 각오가 한데 어우러졌다. 텔런트 출신 목회자인 임동진 목사(한국기독문화예술연대 대표)는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연예인들을 교회가 끌어안아 달라고 호소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 “연예인들을 연예인으로만 보지 말고, 같은 성도로 봐 달라”며 “여러분들께서 이들의 아픔이 뭔지 돌아보고 끌어안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활동이 저조한 연예인들에게 “요새 왜 TV에서 잘 안 보이느냐”는 투의 말은 절대 삼가하고, “요새 힘드시죠? 기도합시다”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달라고 했다.

임 목사는 특히 연예인들의 가치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가난해도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하면 그것으로 족했고, 그런 사명감이 있었다”면서 “요즘은 연예계가 산업화돼 ‘한 번 뜨기만 하면 중소기업’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한국 연예계가 가치관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고 최근 자살사태를 우려했다. 이어 “특히 기획사는 연예인을 상품화해 일회용 물건처럼 쓰고 내버리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며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연예계 풍토를 바꿔보고 싶다”고도 했다.

임 목사는 故 최진실 씨에 대해서도 “가난해서 배우가 됐다고 했는데, (연예계)선배들은 가난해도 남을 즐겁게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다”며 “가치관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를 잡아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오늘을 계기로 연예계가 기독 문화로 바뀌도록 기도하겠다”며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 내 안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3.2.2 자살에 대한 오정현목사의 평가

최근에 온 국민을 망연자실케 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 기사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교회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심히 민망함과 자책감으로 가슴이 터질 지경이다. 그리고 목사로서 선포하는 복음의 본질과 능력이 어떠한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과,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말씀의 능력은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의 날과 환란의 떡’을 삼키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것을 견디고 이기는 비결은 어두울수록 빛을 보려는 노력에 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맬콤 머거리지가 인생의 무력감과 패배감, 공허감에 사로잡혀

자살을 기도한 것은 그의 나이 마흔 살 때였다. “나는 김빠진 술과 절망감에 취해 누워 있었다. 우주 속에서 나는 혼자였다. 유일한 위로인 죽음의 환상에 속아 내가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은 죽음밖에 없었다.” 그래서 익사를 택한 그는 해변으로 차를 몰아 차갑고 어두운 물 속으로 걸어들어 갔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을 넘기 직전 해변의 반짝이는 불빛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 순간 정신 없이 다시 해변을 향해 필사적으로 해엄쳤고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체할 수 없는 황홀한 삶의 기쁨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고백했다. 그 후 머거리지는 고전적 자서전인 ‘잃어버린 시간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삶의 BC와 AD를 감동적으로 쓰고 있다.

교회가 건강해질 때 교회는 머거리지가 보았던 해변의 불빛처럼 세상의 광풍 속에서 익사 직전의 사람들조차 삶의 황홀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빛의 소명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장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4.1 자살예방을 위한 신앙적 교육

4.1.1 인간생명 존엄성 이해 교육

자연과학적인 생명관은 생명을 마치 물질인 것처럼 다루며 생명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 무로부터 생명 자체의 출현(발생)은 과거 단 한번 일어난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증명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²⁶⁾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가르침은 인간에 관한 가장 확실한 진리로서 교회가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상은 대단히 구체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불변의 진리는 인간 존재가 지니는 첫 번째 특징이며 이 특징으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은 또한 인간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자체로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 의미와 하나님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되는 신비로운 존재이다.²⁷⁾ 이 하나님의 모상은 인간의 항구적인 선이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이 사실은 인간 역사의 온갖 재난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권이 인정되어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하나님 앞에 서의 인간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피조물들 사이에서 보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

26) 진교훈,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과학과 가톨릭 윤리」,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4, 5-6쪽.

27) 최장무, 「윤리신학」,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89. 30쪽.

과 뚜렷이 구별되며 모든 피조물들을 위에 세워졌음을 성서는 가르치고 있다. 서편 8 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라고 노래한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른 인간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면 어떤 것과 관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간 사이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당신과 상응하는 그리고 말을 전넬 수 있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피조물 중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걸작이며 결정이며 동시에 완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고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이에 인간은 생명체가 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은 근원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가진 가장 첫 번째 접촉이며 동시에 신비로운 맞닿음에서부터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인간은 창조주의 모상에 따라, 지고한 품위를 지닌 그분의 살아있는 복사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런 참 은혜로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버렸다.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이므로 그 결과가 죽음일 수밖에 없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며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의 상실이다. “내가 죄를 범했다”는 말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나빴다고 시인할 때 사용된다. 여기서 내적인 불의와 죄책,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른 반항, 하나님께 끼치는 모욕 등을 내포한다. 인간이 본래 자유위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올곧게 만드셨지만 그들은 온갖 재주를 부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선악을 알게 됨과 영원히 살게 됨의 언급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형편이 좋게 행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 짓이었던 것이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다. 인간의 결정적인 한계

인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이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결과이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능력, 다른 창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상호 협조적 사랑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타락한 인간은 다른 한편으로 신체적으로 죽음이라는 한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의지적 나약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를 다스리도록 책임과 권한을 지녔으면서도 인류의 뿌리 깊은 구조적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귀한 자유를 하나님과의 대화와 상호간의 사랑을 거부하는 쪽으로 베릴 불안한 존재라는 사실도 말해준다. 죄는 인간이 용서와 은총을 필요로 하는 미완성의 존재이고, 하나님과의 대화, 인간 상호 협력과 사랑, 세계 지배의 사명을 완수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는 개방된 존재이며, 하나님과 세계, 선과 악, 위대함과 비참함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 준다.

인간이 죄 상태에 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자비로운 깊은 사랑을 인간에게 불어 넣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써 분명히 드러났다.²⁸⁾ 한편 인간이 되신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즉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이 육화의 신비 안에서 찾게 해주셨다. 그런데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 단순히 인간의 상태가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 그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었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육화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충만한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된 것이다.²⁹⁾

4.1.2 올바른 죽음의 이해와 수용

28) 요한 3, 16-17.

29) 이동익. “인간 :하나님의 모상”, 「신약과 사상」 7호, 서울: 가톨릭대학 출판부, 1992, 82쪽.

죽음은 누구에게나 맞이하게 되는 보편적, 절대적인 현실이다. 우리는 죽음 그 자체를 미리 개인적으로 체험을 할 수 없지만 죽음을 가까운 문제로서 다루고 의식적으로 죽음에 대비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인생의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죽음의 이해와 수용이라는 것은 곧 삶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성숙한 인격의 완성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데肯(Alfons Deeken) 교수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을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 교육(death education)”은 바로 “좋게 살기 위한 교육(life education)”이라는 것이다.³⁰⁾ 데肯 교수는 죽음 교육의 15개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자살을 기도하는 자의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며 그 예방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현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자살이 고통의 해결책이 된다거나 자기 판단으로 자살할 수 있다거나 혹은 죽으면 고통도 끝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퍼져 있는 것이다.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날마다 많은 자살 사례가 보도되는 일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고 해결책도 보이지 않으면 자살로써 모두 끝내버리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살은 자기 의지의 수행이고, 고통에서의 해방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자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셈이다. 그런데 자살률 증가의 추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자살예방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

30) 알폰스 데肯,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진탁 역 궁리출판, 2005, 21쪽

바른 죽음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 안에서 죽음 이해에 대한 오해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자살을 통하여 죽음에 따른 고통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고 올바른 생사관이 정립될 수 있다면, 자살자는 자연히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삶의 소중함을 확실히 깨닫고, 삶의 깊은 의미를 재발견하게 되어 결코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을 돌릴 것이다.

“인간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사후 생명이란 과연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것이다. 죽은 후에도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란 확실히 불가능하다. 하지만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신앙이다.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받게 될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친다. 성서를 보면 죽음에 관하여 기쁨에 넘친 표현을 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면 장래에 맞이하게 될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올 현상이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다. 죽음을 깊이 응시하며 성찰하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묻는 ‘삶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생명의 가치와 귀중함을 이해하고 보다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4.2 자살예방을 위한 기독교단체의 역할

4.2.1 교회의 역할

교회가 교단적 또는 집단적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회에 생명의 담보가 되는 교회가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이 자살의 문제에서 만큼은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매 주일 선포되어지는 설교 속에서 자살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는 이미 2004년 공동으로 ‘언론의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이 교회도 자살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살에 대한 예방책이나 설교에 있어서 자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자살 문제는 기독교인에게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최근 유명 기독교 연예인의 자살 소식이 이어지고 있거니와, 필자가 실시했던 통계 조사에서는 기독교인도 자살 충동을 느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19.2%가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개신교인 5명 중 1명꼴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14.5%가 실제로 자살 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신의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사고에 빠져들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생각 한 가지에만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는 이른바 ‘터널 증후군’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마치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면서 자살을 유일한 대안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여겨 단순히 신앙이 좋으면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자살 문제는 자살 문제 자체로 교회 차원의 대비와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자살’이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매우 꺼리는 분위기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8.1%는 “자살에 대해 말(조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는 한 자원봉사자는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중고등학교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제안하려고 학교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조용히 공부 잘 하는 아이들 괜히 부추기지 말라며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위해 지하철역 구내에 스티커를 붙였던 한 정신과 의사는 엄청난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고 한다.

자살 문제는 그저 덮어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살은 일종의 사회적 질병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자살도 질병이다”, “자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사회 규범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기관은 자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방책 강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4.2.1.1 작은 모임의 활성화

자살은 명백히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범죄와 같이 자살 역시 당위론만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는다. 정신의학에서는 자살에는 징후가 있음을 강조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 징후가 나타나는지 각별한 주의를 갖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다. 또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측정을 통해 자살 기도 여부를 예견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물론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여 모두 자살하는 것은 아니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잠

재적 자살기도자로 취급하여 감시를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에서는 자살과 사회 통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표면상으로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근원적으로는 사회 통합의 약화나 결여가 자살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중병에 걸린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망 직전에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표현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암 때문에 사망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위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자기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이다. 어떤 집단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며 그 안에서 자신이 수용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존재로 존중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살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다. 필자가 만난 자살 충동 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주위에 없었음을 고백하였다.

과거와 같은 친족 및 지역 공동체가 해체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서를 공유하는 공동체 모임 안에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일시성과 삶의 과편화는 다양한 지원 체계들의 지원을 저해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교회 자체가 제도화됨에 따라 관료제화되는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이에 따라 교회 안에서조차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갖기가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울 및 수도권의 교회들은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교회 안에서 참자아를 찾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공동체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공동체성이란 대집단에서는 확보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그룹은 친밀한 대면 관계를 통해 결속감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의 효과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소그룹에서의 경험은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군중 속의 고독’으로 표현되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설교를 통하여 자살 문제에 대해 직간접으로 언급을 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식의 위협적인 경고보다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르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특강 또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여건이 된다면 교회 연합의 자살 예방 대책 기구를 설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4.2.1.2 교회역할의 강화

오늘날 세상에, 교회도 많은데, 무엇 하는지 묻는다. 기독교 사생관(死生觀)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지? 자본주의 성장주의에 따라 천국시민에 앞서, 현세의 교인수와 큰 예배당 건물 건축 및 현당에 매진하는 교회지도자들은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고 볼멘소리로 투덜거리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

모름지기, “오늘의 교회가 [자살](自殺)의 길로 걷고 있는 듯하여, 물사람들이 저렇게 ‘자살’을 한다”라고 통탄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

또한, [자살]은 무지(無知).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 특별히, 남들보다, 악하게 또는 못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라, 삶의 도리(道理).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삶에도 길이 있는 것이다.

교회가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상담자의 입장에서 상처 입은 이웃들을 돌

보는 사역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다. 유영권 연세대 목회상담학 교수는 “교회는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며 정죄에 치중하기보다 예방 차원에서 목회자들이 상담 활동을 통해 자살 충동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성장만을 강조하지 말고 본연의 목적인 생명 존중의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요즘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데 교회가 먼저 나서 생명 존중 운동을 벌이고 자살 예방 사업을 펼쳐나간다면 길거리 노방전도보다 더 좋은 전도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유 교수는 자살 방지를 위해 목회자와 교인들이 자살 징후를 보이는 이웃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전문 기관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살 유가족 돌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살은 명백히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³¹⁾ 그러나 다른 모든 범죄와 같이 자살 역시 당위론만으로는 예방되지 않는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설교를 통하여 자살문제에 대해 개신교인으로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고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특강 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자체가 제도화됨에 따라 관료제화되는 특성을 보이게 되고 이에 따라 교회 안에서조차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갖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라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회안의 소그룹들을 활성화 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인격을 통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

31) 정재영, “자살의 사회적 요인과 교회의 책임”, 「교회와 사회」, 제3권 2호, 2005년 53-55쪽

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스스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면,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배풀 수 있는 여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자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2.1.3 교회-사회의 연계

사람은 정신이나 신체가 불균형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 스스로 이를 안정화하고 균형이 잡힌 상태로 복귀하도록 하는 ‘항상성’(homeostasis)이라는 생명보호 시스템이 있다. 인간 사회에도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여러 시스템이나 제도를 이용하여 생명의 향상성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자살이라는 행동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다. 좁게는 그 자살자의 가족과 친족, 넓게는 사회 전반적으로 과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또한 자살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자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살예방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꼈을 때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상담자가 곁에 있으면 즉시 그 고민을 없앨 수 있지만 적당한 상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살을 실행해버릴 것이다. 여기서 먼저 교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는 고민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적 지원을 해야 하고, 그러한 지원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에게 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현대의 목자는 네트워크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드러나는 자살에 대한 역동성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고귀한

존엄성을 고취시키는 그리스도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한 층 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살 계획자들과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나서는 착한 목자를 본받아 따뜻한 애정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새로운 생명과 구원애로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자살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거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가 현대화되고 핵가족으로 변화되면서 전통적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자살 문제를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여러 정책이 사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하려면 자살예방프로그램이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힘을 다해야 한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생명존중프로그램이나 생명운동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웃, 교회, 사회의 연계일 것이다.

4.2.2 기독교NGO의 역할

4.2.2.1 기독교NGO의 개념

기독교NGO의 성경적 근거는 ‘야고보고서’ 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행함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선행은 믿음을 동반하여야 하며 믿음은 행함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행함을 나타내는 기초적 방식이 교회복지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실천 방법으로 기독교 NGO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NGO의 본질은 믿음의 행위,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성서적 근거를 두고 있다.³²⁾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인류의 구원이고, 그 방편으로 선교가 요청되는데 그 선교의 방법이 현대에는 기독교 NGO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NGO는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그 근본에 두고 모든 인류의 구원을 목표로 삼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기독교 NGO는 교회복지의 전체 영역과 사회복지의 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NGO란 기독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경제적인 분, 전문적인 지식, 사회적 지위, 건강 서비스 체제 등 현실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고 인류의 부패를 방지하는 일련의 현장목회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³³⁾

4.2.2.2 기독교 NGO의 원리

기독교 시민운동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양들을 치고 보살피는 일과 자연환경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기독교 시민운동은 인류사회와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보살핌의 관점에서 David Wiersbe와 Warren Wiersbe는 기독교 시민운동의 지도자의 목회원리로서 다음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³⁴⁾

32) 김장대, 「세계기독교 NGO총론」,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1년 82쪽

33) 위의 책, 90쪽

34) David Wiersbe & Warren Wiersbe, *Making Sense of the m*

- 목회의 기초는 인격이다.
- 목회의 성공은 봉사이다
- 목회를 위한 동기는 사랑이다.
- 목회를 위한 수단은 희생이다.
- 목회의 권위는 복종이다.
- 목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 목회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 목회의 특권은 성장이다.
- 목회의 능력은 성령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시민운동은 전 인격성의 성화와 희생적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은 인류사회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내부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기독교 시민운동의 내부적 원리와 하나님의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복지사회 건설의 외부적 원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2.2.3 자살방지를 위한 기독교 NGO의 역할

한국교회가 선교초기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자”라는 메세지를 전했고 이 메세지는 일제의 암울한 압제 속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다. 60년대 이후에 전국가적인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한국교회는 복음의 메세지를 “예수 믿고 복 받자”로 바꾸었다. 이 또한 사람들의 노출신경과 부합하여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한국교회의 부흥성장의

inistry, Chicago: Moody Press, 1983, 34-35쪽.

한 요소가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세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국민소득 1만 불을 앞둔 시점에서 기복적 메세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총체적인 부정부패와 부정직, 돈에 대한 우상과 쾌락 지향적인 문화 속에서 시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기대는 천당도, 복도 아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상에 “예수 믿고 올바로 살자” “예수 믿고 약자들을 돌보며,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자”는 메세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제자의 지적대로 ‘메세지’를 전할 뿐 아니라 교회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화를 창출하여 교회공동체 문화를 지역공동체의 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기윤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한 기독교 NGO 단체들은 자살지향적인 단체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NGO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꾸준한 소개와 계몽이 필요하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 기독교 NGO 단체들은 그 성격상 한국교회와 절대적인 협력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물적, 인적 자원이 교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가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NGO 단체들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3 생명의 전화 활용

1963년 호주 시드니에서 알렌 워크 목사가 설립한 ‘생명의 전화’는 워크 목사가 우연히 상담했던 자살희망자가 결국 죽게 되자, 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자살 전화 상

담을 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지금은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아프리카 등 300여 개의 지역 센트로 운영되는 국제적 상담기구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는 1976년 처음 시작되었다. 현재 전국에 14개의 지부센터가 개설되었고 일정한 훈련을 거친 자원 봉사자 3,500여 명이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업무는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인력난과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살관련 사립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정부에서 215억 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자살 등 정신질환 연구 분야에 투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예방센터가 1년에 500만원과 소정의 사회복지기부금을 지원 받는 것이 예산의 전부다. 정부는 중국 올림픽 연예인 파견단 지원 등 쓸데없는 곳에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진정 필요한 곳에는 정부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예방센터와 생명의 전화 등에 필요한 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자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자살은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 문제의 원인, 유형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살은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간에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그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

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 사회 전체의 문제의 간주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종래의 자살의 유형에서 좀 더 문제시되는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그러한 문제들은 사회 전체의 가치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자살문제도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문제이다. 사회 전체의 가치관에 합의하지 못하고 돌출행동을 하는 사람의 유형의 하나가 바로 자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의 문제를 가치관의 문제라 생각하고 사회의 가치관을 균형 있게 정립하는 것도 자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고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해결하려 하며 동질감을 형성해 줄 때 자살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출발한 각종 상담센터는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그 수가 상당히 적다. 그러므로 사회제반적인 지원도 중요하게 요구된다.

결국 자살기도자에 대한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문제의 공감적 이해가 자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이며 초석이 될 것이다.

자살은 사회가 모든 사회 성원들을 모든 측면에서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통합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온다. 자살이 과도하게 증가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자살이 유래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은 자신보다 선행하고 자신보다 영속하며 모든 면에서 자신을 포괄하고 있는 집합적 존재와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느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을 행동

의 유일한 목표로 생각하지 않게 되며, 자신을 자신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수단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생존은 그 본래의 목적과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시점에 같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문제들 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로 '자살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 자살문제는 최근에 스타연예인의 자살로 인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어 사회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알려주었다. 그럼 이러한 자살을 왜 하는 것일까? 자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중 하나라고 말한다. 우리는 인간만이 유일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이후 들려오는 소식들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실업과 기업의 도산에 따른 자살이다. 가장(家長)의 자살, 가족 동반 자살, 남편의 실업을 비관한 아내의 자살 등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물론 자살자들의 생활고나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러한 자살 분위기가 오늘날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미노 현상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그렇게 자살했을까 하는, 자살을 묵인하는 풍조가 사회 속에 번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사실 이전까지의 자살은 입시에 대한 강박감과 이성 문제로 충격을 받은 청소년층, 삶에 대한 회의에 휩싸인 노인층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요즘은 30~50대가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이 시대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살에 대한 실태와 그 대처 방안을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볼 때 자살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화와 시대적 사상에 따라 다른 입장으로 보여 왔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행한 처사로 생각하여 특별한

경우로 취급하였다. 군신들의 경우, 충성의 표시로 사용되기도 하며 황족에 대한 처형의 예우(賜藥)로 요구되기도 하였다. 한편, 같은 희랍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소크라테스(Socrates).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같은 철학자는 자살을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로 보았고, 스토이즘(Stoicism)에 속한 사람들은 자유인의 상징이며 권리로 보았다. 세네카(Seneca)는 자살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권리며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고상한 행위라고 말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급증하는 자살률이 보여주듯이 자살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일반적인 방편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 현실을 맞이한 교회는 교육과 실천의 두 전선에서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의 차원에서 교회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자유로운 도덕적 결단을 할 능력이 있으며, 마음에 심기어진 도덕법에 근거하여 자살이 잘못된 관행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자살충동요인들에 운명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요인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임을 아울러 강조해야 한다. 인간에게 삶에의 본능적 욕구는 있지만 죽음에의 충동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더욱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백한 성경의 법이 있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에의 충동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자들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교회는 자살충동을 유발하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실질적으로 제거 내지 완화시키기 위한 실천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구제 기금을 조성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경제적으로 돋는다든지,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자살충동을 느끼는 자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위로하고 설득하는 상담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든지, 자살결행자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복음의 위로와 사랑의 실천이 풍부하게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교회는 또한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으며 사후에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준엄한 진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자살과 관련된 부당한 구원문제에 있어서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현

1. 국내 서적

- 장두호. 『자연법 사회 윤리』, 서울: 인간사랑, 2003
- 권성수. 『자살, 성경 속에서 알아본다』, 서울: 노서원, 1999.
- 김광일. 『누구나 한번은 자살을 생각한다』, 서울: 샘터, 1990.
- 김미영. 『자살충동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 서울: 나남출판사, 1990.
- 김장대. 『세계기독교 NGO총론』,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2001년
- 박원기. 『기독교 사회윤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맹용길. 『기독교윤리학개론』,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1994
- 『현대인과 윤리』,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0.
- 전우택. 『자살예방정책』, 보건복지부, 2004
- 정인화. 『고뇌하는 현대인들』, 서울: 서광사, 1996
- 최장무. 『윤리신학』,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89.

2. 번역 서적

- Albarez, Alfred. 『자살의 연구』, 최승자 역, 서울: 청아출판사, 2000
- Blocher, Henri. 『자살』, 한국기독학생출판부, 1986.
- Durkheim, Emile. 『자살론: 사회학적 연구』, 김충선 역, 서울: 청아
출판사, 1994
- K.H. 페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2권』, 김창운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2

Schopenhauer. Arthur, 『삶과 죽음의 번뇌』, 송영택 역, 서울: 도서출판 회현, 1979.

Stengle, M.. 『인간은 왜 자살하는가』, 박연주 역, 서울: 조선일보사, 1986
박찬부 역.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 서울: 열린 책들., 1997

3. 외국 서적

Clemons, J..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Suicide*, Westminster: John Knox, 1990
David Wiersbe & Warren Wiersbe, *Making Sense of the Ministry*, Chicago: Moody Press, 1983

4. 국내논문

구미경. “생태여성주의의 기독교사회윤리적 수용 가능성 모색”,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김순애.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목회」, 가을호, 통권 제18호: 46-52.

김종두. “자살에 대한 이론적 접근”, 「교육논총」, 제2집, 서원대학교 교육 대학원, 1998, 307-329.

김종원. “자살”, 「의학윤리」, 서울: 한국가톨릭의사협회, 1992.

나학진. “자살 정당한가”, 「자살」,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박현민.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사목”, 「사목」, 2003, 104-105

소병근. “죽음이해와 임종교역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3.

송효정. “본휘퍼의 기독론적 현실과 죽음론”, 「석사학위논문」, 침례신 학대학원, 1994

이미식. “자살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2.

육성필. “자살관련 변인의 탐색과 치료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원종훈.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정성수. “자살유가족들에 대한 교회의 돌봄”,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진교훈.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과학과 가톨릭 윤리」,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4.

5. 기타자료

신학전망. 자살에 대한 윤리적 고찰, 광주가톨릭대학교, 2005년 봄호

이동익. “인간 :하나님의 모상”, 「신약과 사상」 7호, 서울:가톨릭대학

출판부, 1992

이상원. “자살은 상인행위”(기독신 2001년 5월 2일자).

2003, “자살은 세계관의 문제다.” [교육목회], 가을호, 제18호: 9-16.

2004, “자살을 부추기는 문화.” [건강과 생명], 3월호, 제166호: 64-69.

이원규. “자살예방에 대한 교회의 역할.” [교육목회], 2003년 가을호, 통권 제18호: 59-66.

조준필. “자살예방을 위한 담론.” [교육목회], 2003년 가을호, 통권 제18호: 25-30.

황보연. “노부부와 손자 동반자살 기도”(2004년 8월 5일).

하상훈. “생명의 끈잇기 운동.” [건강과 생명], 2004년 3월호: 70-75.

김조흡 역. [하나님의 도성].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2.